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리스크관리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44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주식 편입비 :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4년 12월 21일)

- 클래스 A : 2010년 08월 12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 : 2010년 07월 26일
- 클래스 C-E : 2012년 02월 13일
- 클래스 C-P2(연금지속) : 2015년 08월 20일
- 클래스 C2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3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4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C5 : 2010년 10월 25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 클래스 S-P : 2017년 05월 23일

벤치마크 KOSPI 100%

신탁업자 SC제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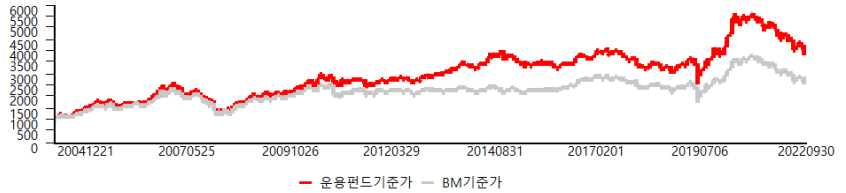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12.44%	-7.62%	-21.55%	-27.15%	-4.71%	14.01%	1.50%	270.90%
클래스 A	-12.57%	-8.01%	-22.25%	-28.40%	-7.87%	8.35%	-6.73%	41.17%
클래스 A-E	-12.53%	-7.90%	-22.04%	-28.03%	-6.93%	10.03%	-4.32%	5.79%
클래스 C	-12.62%	-8.16%	-22.50%	-28.85%	-8.97%	6.39%	-9.51%	24.10%
클래스 C-E	-12.58%	-8.04%	-22.29%	-28.48%	-8.05%	8.02%	-7.20%	14.98%
클래스 C-P2(연금지속)	-12.55%	-7.95%	-22.14%	-28.22%	-7.40%	9.19%	-5.53%	-8.41%
클래스 C2	-12.61%	-8.12%	-22.44%	-28.74%	-8.35%	7.29%	-8.51%	26.59%
클래스 C3	-12.60%	-8.08%	-22.36%	-28.40%	-8.17%	7.61%	-8.01%	28.34%
클래스 C4	-12.59%	-8.07%	-22.34%	-28.57%	-8.28%	7.61%	-7.80%	29.72%
클래스 C5	-12.58%	-8.04%	-22.29%	-28.48%	-8.05%	8.02%	-7.20%	31.74%
클래스 S	-12.53%	-7.88%	-22.02%	-27.99%	-6.84%	10.18%	-4.10%	10.86%
클래스 S-P	-12.51%	-7.82%	-21.91%	-27.80%	-6.38%	-	-	16.55%
벤치마크	-12.81%	-7.59%	-21.84%	-29.76%	-7.41%	4.48%	-9.98%	143.75%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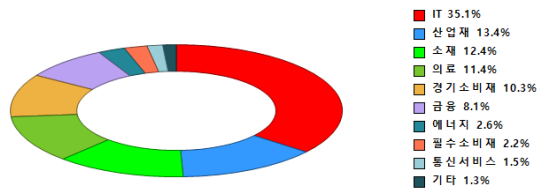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2년 09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2년 09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19.4	신한지주	금융업	2.7
삼성바이오로직스	의약품	4.8	DL	금융업	2.4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4.3	현대차	운수장비	2.4
POSCO홀딩스	철강및금속	2.9	삼성SDI	전기,전자	2.3
셀트리온	의약품	2.9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1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675% (판매 0.9%)
- 클래스 A-E : 총 연 1.175% (판매 0.4%)
- 클래스 C : 총 연 2.275%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425% (판매 0.65%)
- 클래스 C2 : 총 연 2.145% (판매 1.37%)
- 클래스 C3 : 총 연 2.025% (판매 1.25%)
- 클래스 C4 : 총 연 1.905% (판매 1.13%)
- 클래스 C5 : 총 연 1.775% (판매 1%)
- 클래스 S : 총 연 1.125% (판매 0.35%)
- 클래스 S-P : 총 연 0.975% (판매 0.2%)

(공통사항)

운용 0.72%, 신탁 0.04%,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C/C-E: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9월 KOSPI는 전월 대비 12.81% 하락한 2,155.49pt, KOSDAQ은 16.65% 하락한 672.65pt로 마감하였습니다. 미 연준의 물가 상승세 억제를 위한 긴축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한국 주식 시장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유럽 지정학적 위험, 중국 경기 부진, 원화약세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수출업종 중심으로 기업이익 예상치가 빠르게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유, 기계, 조선, 운수창고 등 경기민감업종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 음식료, 통신서비스, 유통, 보험 업종 주가는 지수 하락 폭 대비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월에 이어 추가 약세를 보이며 1,430.55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연초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WTI 기준 국제 유가 또한 79.91 달러로 전월 대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동 기간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 기관투자자는 각각 약 2.5조원 및 3554억원을 순매도하였고 국내 개인 투자자는 약 2.7조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월 초 시장의 하락 가능성을 예상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BM 대비 복제율을 상향하고, 분기배당 실시 기업에 대한 비중을 높여 분기배당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한 손해가 컸던 인터넷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였고 화학, 반도체 등 경기 민감 업종의 비중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배분 효과에 따른 긍정적 기여가 발생하였습니다. 가격 매력이 존재했던 철강 및 건설 섹터, 방산을 포함한 기계 섹터의 부진이 수익률에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종목별로는 SK텔레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0월 국내 증시는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승 반전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긴축 통화 정책과 유럽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인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COVID-19 팬데믹 기간의 상승분을 반납, 그 이전 주가지수로 회귀한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미 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유럽, 중국 경기 부진 등이 이어지는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이 여전히 부담요인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이익 하향 조정을 통해 최근 주식시장 조정 과정에서 개별 기업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 하락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금리 인상 및 유동성 회수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 및 공급망 정상화 등을 고려할 때 4분기 이후 물가상승세 둔화 및 이에 따른 선진국의 긴축 강도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도 점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의センチ먼트는 Investment Clock 상 Fear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하락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나 시장의 상승 반전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취약한 투자심리상 높은 변동성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하락 사이클이 무차별적인 매도 사이클이었다면 향후에는 시장과 업종의 실적을 감안한 차별적인 추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전월까지는 배당 수익의 적극적인 확보, 높은 복제율 유지, 경기 방어주 비중 확대를 통한 수익률 방어에 주력하였으나 향후에는 일시적 가격 괴리를 활용한 수익 누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보다는 실적의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구성 종목을 압축할 계획이며 시장의 일시적인 가격 괴리가 발생할 경우 비중 확대의 시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23년 실적 개선 업종 및 종목 찾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3년 실적 개선 업종을 제약 업종과 최악의 국면을 보내고 있는 화학, 건조량 증가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조선,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중을 높게 유지하거나 추가적인 확대를 통해 초과 수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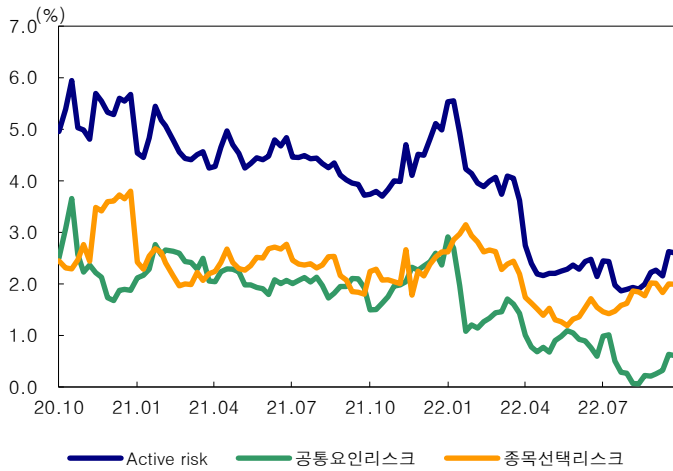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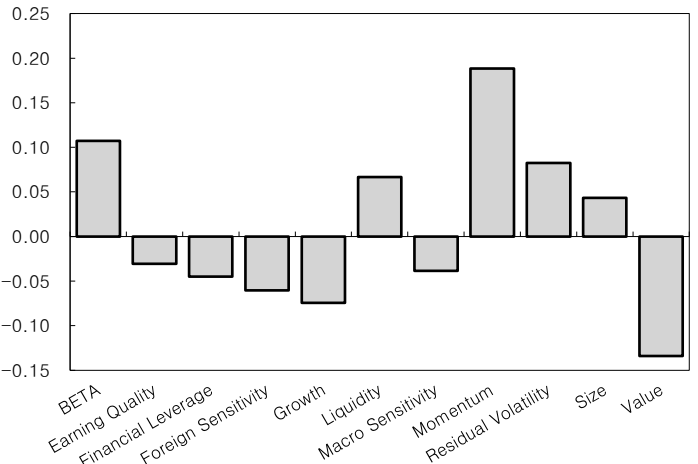
	2022-09-30	2022-08-31
Active Risk ¹	2.60%	2.19%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²	0.61%	0.26%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0.08%	0.09%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53%	0.17%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³	1.99%	1.94%
베타	0.92	0.89

1. Active Risk는 벤치마크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벤치마크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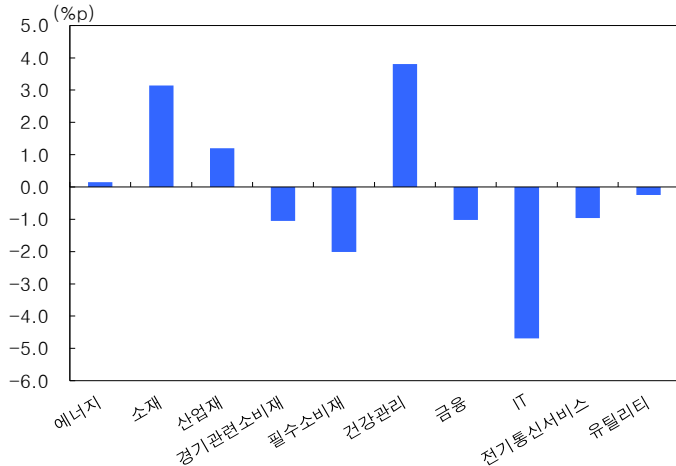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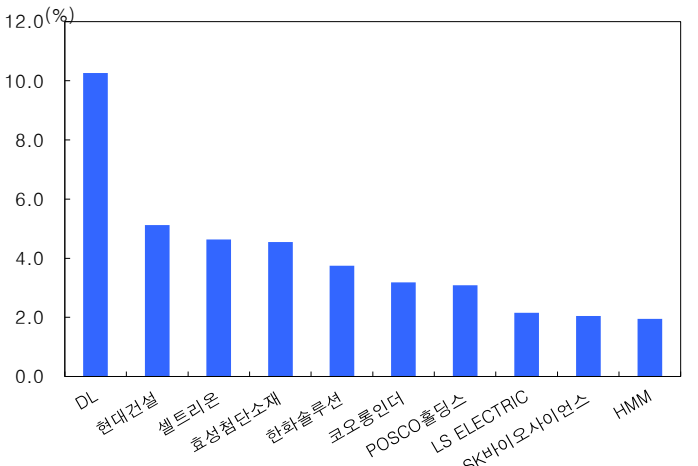
<벤치마크 대비 스타일 비중차>



<벤치마크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8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9월말 현재, 업종일등증권1[주식] 펀드의 Active Risk는 2.6%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 종목수는 전월대비 1개 종목 증가하여, 126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벤치마크 대비 '건강관리', 'IT'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금융', '소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8월말 기준으로는 'DL'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셀트리온'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증가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 동펀드는 'Value'보다는 'Momentum'이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